

김헌의 좌파 명리학

이론 세미나과정

제이강 성격과 지성
지위와 충신



● 수요(壽夭)

- 사주의 청순(淸純)·혼탁(混濁)

수(壽)

何知其人壽 性定元氣厚
하지기인수 성정원기후

그 사람이 오래 살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
오행이 조화를 이루어 성품이 반듯하고 원기가 두텁기 때문이며

신약한데 인수가 월령을 잡아
원신이 두터운 [元神厚, 원신후] 경우

戊	丙	乙	己				
子	寅	亥	酉				
丁	戊	己	庚	辛	壬	癸	甲
卯	辰	巳	午	未	申	酉	戌

● 수요(壽夭)

- 사주의 청순(淸純)·혼탁(混濁)

요(夭)

何知其人夭 氣濁神枯了
하지기인요 기탁신고료

그사람이 일찍 죽을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
사주의 기운이 탁하고 사주의 신(神)이 메말랐기 때문이다

인성이 용신인데 [身弱用印, 신약용인]
 재성이 인성을 무너뜨린 [財星壞印, 재성괴인] 경우

辛	丙	乙	乙				
卯	辰	酉	丑				
丁	戊	己	庚	辛	壬	癸	甲
丑	寅	卯	辰	巳	午	未	申

용신은 약하고 [用神淺薄, 용신천박]
 기신은 무거운 [忌神深重, 기신심중] 경우



신왕(身旺)한데 식상의 설(洩)이 전혀 없는 경우

壬	甲	壬	壬				
申	寅	寅	寅				
庚	己	戊	丁	丙	乙	甲	癸
戌	酉	申	未	午	巳	辰	卯

사주에 금수(金水)가 많아 열고 차가운데 토(土)마저 축축한 경우

癸	癸	辛	辛				
丑	酉	丑	丑				
癸	甲	乙	丙	丁	戊	己	庚
巳	午	未	申	酉	戌	亥	子

● 질병(疾病)

오행불배(五行不背)

-오행이 서로 배반하지 않을 때

五行和者 一世無災
오행화자 일세무재

사주의 오행이 조화를 이루어 화목하다면
오장(五臟)이 온전하여 일평생 재앙이 없이
무병장수(無病長壽)할 것이고

왕신(旺神)이 너무 지나쳐 설하는 것이 마땅한 경우
[太過宜洩, 태과의설]

甲	戊	庚	甲				
寅	寅	午	寅				
戊	丁	丙	乙	甲	癸	壬	辛
寅	丑	子	亥	戌	酉	申	未

● 질병(疾病)

오행불순(五行不順)

-오행이 순조롭게 이어지지 않을 때

血氣亂者 生平多疾
혈기난자 생평다질

사주의 오행이 순리를 거역하여 혈기가 어지럽다면
오장이 해를 입어 평생 많은 질병에 시달릴 것이다

목(木)이 많아 수(水)를 스며 나오게 하는
[木多參水, 목다삼수] 경우

壬	丙	丙	甲				
辰	寅	寅	辰				
甲	癸	壬	辛	庚	己	戊	丁
戌	酉	申	未	午	巳	辰	卯

● 질병(疾病)

음탁지기(陰濁之氣)

-기신(忌神)이 지지에 암장되어 있을 때

忌神入五臟而病凶
기신입오장이병흉

기신(忌神) 즉 음탁지기(陰濁之氣)가 지지의
오장에 깊숙이 들어간다면
그 병(病)은 아주 심하여 재앙이 될 것이고

음탁지기(陰濁之氣)

기신(忌神)인 신금(辛金)이 토(土) 속에 암장된 경우

乙	丙	己	庚				
未	子	丑	寅				
丁	丙	乙	甲	癸	壬	辛	庚
酉	申	未	午	巳	辰	卯	寅

● 질병(疾病)

금수상관(金水傷官)

-금(金) 일주가 겨울에 태어났을 때 [冬金, 동금]

金水傷官 寒則冷嗽 熱則痰火
금수상관 한즉랭수 열즉담화

수왕절(水旺節)인 겨울에 태어난 금(金) 일주가
사주에 찬 기운이 지나치면 냉기침을 하는 병에 걸리고
사주에 뜨거운 기운이 지나치면 담으로 인해
가슴이 답답해지는 병에 걸릴 것이다

금수상관이 사주에 뜨거운 기운이 지나친 경우

丙	庚	丙	甲				
戌	子	子	戌				
甲	癸	壬	辛	庚	己	戊	丁
申	未	午	巳	辰	卯	寅	丑

● 질병(疾病)

화토인수(火土印綬)

-토(土) 일주가 여름에 태어났을 때 [夏土, 하토]

火土印綬 熱則風痰 燥則皮痒
화토인수 열즉풍담 조즉피양

화왕절(火旺節)인 여름에 태어난 토(土) 일주가
사주에 뜨거운 기운이 지나치면 풍증을 일으키는 담병에 걸리고
사주가 지나치게 메마르면 피부병에 걸린다

화토인수사주가 지나치게 축축한 경우



● 질병(疾病)

화왕봉목(火旺逢木)

-왕(旺)한 화(火)가 목(木)을 만났을 때

論痰多木火
논담다목화

담(痰)과 관련된 병[痰病, 담병]이 생기게 되는 것은 사주에 목(木)과 화(火)가 많기 때문이고

● 질병(疾病)

취금봉화(脆金逢火)

-무르고 약한 금(金)이 화(火)를 만났을 때

生毒鬱火金
생독울화금

몸 안에 독(毒)이 생기게 되는 것은
금(金)이 화(火)에 막혀 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

● 질병(疾病)

금수고상(金水枯傷)

-금(金)과 수(水)가 메마르고 이지러졌을 때

金水枯傷而腎經虛
금수고상이신경허

사주의 오행 중에서 금(金)과 수(水)가
이지러지고 메마르면
신장(腎臟)의 경락(經絡)이 허약해져 병이 생기고

● 질병(疾病)

수목상승(水木相勝)

-수(水)와 목(木)이 토(土)와 싸워 이길 때

水木相勝而脾胃洩
수목상승이비위설

사주의 오행 중에서 수(水)와 목(木)이 지나쳐
토(土)와 싸워 이기면
비장(脾臟)과 위장(胃臟)의 기운이 새어나가 병이 생긴다

일주(日主)가 금(金)이고 목(木)이 재성인 경우
-수목상승중 목(木)이 토(土)를 극하는 경우

戊	庚	乙	癸				
寅	戌	卯	酉				
丁	戊	己	庚	辛	壬	癸	甲
未	申	酉	戌	亥	子	丑	寅

● 출신(出身)

원기존언(元機存焉)

-사주에 원기(元機)가 있다

巍巍科第邁等倫 一個元機暗裏存
외외과제매등륜 일개원기암리존

높고 높은 과거시험에서 같은 무리 중에서 뺄 수 있는 것은
하나의 근본이 되는 틀 [元機, 원기]이
사주 속에 은밀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니

● 출신(出身)

청기득진(淸氣得盡)

-사주에 청기(淸氣)가 있다

淸得靜時黃榜客 雖存濁氣亦中式
청득정시황방객 수존탁기역중식

사주가 맑은 기운 [淸氣, 청기]를 얻어 그 기를 다하면
그는 아주 귀한 사람이 되어 높은 벼슬을 누릴 것이고
비록 그 사람의 사주 안에 탁한 기운이 함께 있다 하더라도
아주 귀하게는 못 되어도 중간 정도의 벼슬은 할 수 있을 것이다

사주가 많은 기운을 얻어
그 기운을 다한 [淸得盡, 청득진] 경우

乙	癸	己	壬				
卯	卯	酉	辰				
丁	丙	乙	甲	癸	壬	辛	庚
巳	辰	卯	寅	丑	子	亥	戌

● 출신(出身)

청기유 관불기(清氣有 官不起)

-청기는 있으나 관성의 역할이 아쉽다

秀才不是塵凡子 清氣還嫌官不起
수재불시진범자 청기환혐관불기

평생 글공부만 하고 벼슬을 못하는 사람 [秀才, 수재]도
결코 평범한 사람은 아닌데
청기는 있으나 불만스럽게도 관성이 떨어져
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

관성이 투출했으나 지지에서 실어주지 않는
[地支不載, 지지부재] 경우

己	丁	甲	壬				
酉	巳	辰	午				
壬	辛	庚	己	戊	丁	丙	乙
子	亥	戌	酉	申	未	午	巳

관성이 상관 위에 있는 경우



● 출신(出身)

일간득기 재관상통(日干得氣 財官相通)

-재성과 관성이 서로 통한다

異路功名莫說輕 日干得氣遇財星
이로공명막화경 일간득기우재성

과거를 치르지 않고 벼슬을 하여
공명을 얻었다고 함부로 말하지 말지니
일간이 기운을 얻고 관성이 재성을 만나면
이 또한 가능한 것이다

● 지위(地位)

청기발기권(淸氣發機權)

-맑은 기운이 주도권을 잡는다

臺閣勳名百世傳 天然淸氣發機權
대각훈명백세전 천연청기발기권

세상에 태어나 공적을 남기고
후세에 그 이름을 떨치는 경우는
사주에 맑은 기운이 자연스럽게 일어나
사주의 주도권을 잡고 있을 것이며

● 지위(地位)

인살신청(刃殺神淸)

-양인(陽刃)이 왕(旺)하고 월령(月令)을 잡는다

兵權獬豸弁冠客 刃殺神淸氣勢特
병권해치변관객 인살신청기세특

병권을 잡거나
형벌을 담당하는 권력을 지닌 벼슬을 하는 것은
양인(陽刃)과 편관(偏官)의 기운이 맑고
그 기세가 특별한 경우이다

인살신청 (刃殺神清氣)

-가을에 태어난 경금(庚金)이

양인(陽刃)인 유금(酉金)을 용신으로 삼은 경우

丙	庚	己	壬				
戌	午	酉	寅				
丁	丙	乙	甲	癸	壬	辛	庚
巳	辰	卯	寅	丑	子	亥	戌

● 지위(地位)

희용유정 정기신족(喜用有情 精氣神足)

-사주에 막힘이 없다

分藩司牧財官和 清純格局神氣多
분번사목재관화 청순격국신기다

한 지역을 맡아 다스리는 사람은
사주의 재성과 관성이 서로 화합하고
격국이 맑고 순수하며
정기신(精氣神) 세 가지가 두루 갖춰져 있다

● 정원(貞元)

造化起於元 亦止於貞
조화기어원 역지어정
再肇貞元之會 胚胎嗣續之機
재조정원지회 배태사속지기

만물을 창조하고 기르는 대자연의 이치 [造化, 조화]는
원(元)에서 일어나 정(貞)에서 멈추지만
다시 정원(貞元)의 만남이 시작되는 것이
자식을 잉태하여 대를 이어가는 기틀이라 하겠다